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지역사회 한 뜻 모았다

전남도, 범시도민 지원위 보고회...세계 10대 공대 의지 캠퍼스 건설 현황·운영방안·에너지산업 육성계획 발표

나주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성공 개교와 함께 세계 Top 10 공대 육성 의지를 모으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뜻을 모았다.

전남도는 9일 도청 왕인실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범시도민 지원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강인규 나주시장, 이재훈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장, 이현빈 한전 부사장,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황금영 전남 사회단체연합회장,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현창 전남도의회 경관위원장 등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범시도민지원위 위원, 시민단체 및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에선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부터 지난 3월 특별법이 통과하기까지 많은 지원을 한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시민단체 등에 감사를 표하고, 대학 설립·캠퍼스 건설 현황,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방안, 전남도 에너지산업 육성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히 전남도, 한전, 에너지공대, 전남도민이 하나 돼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Top 10 공대로 성장하길 바라는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재훈 위원장은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국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Top10 공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수많은 과제에 필요한 민간자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학 설립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한국에너지공대법 통과 과정에서 지원위원회, 시민단체, 향우회 등 지역사회가 하나 돼 정치권을 향해 보여준 대학 설립과 개교를 향한 열원은 뜨거운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이라며 "광주시와 함께 전남이 서로 협력해 한국에너지공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산업 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범시도민 지원위 보고대회가 9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이현빈 한전 부사장, 이재훈 한국에너지공대 범시도민 지원위원장,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세계 TOP 10 공대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러스터를 구축해 광주·전남이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에너지공대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이 보고대회를 시청하도록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 으뜸전남튜브'

로 생중계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전남도와 중앙정부, 에너지 공기업 한전이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 공공형 특수대학으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형 인재 양성 대학이다. 에너지 분야 세계적 석학이 교수진으

로 구성됐으며, 재학생 모두에게 등록금,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운영해 에너지 분야 연구와 창업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지원을 위해 2019년 출범했

다. 지난 3월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 촉구, 대학 설립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민 공감대 형성, 지역 간 상생협력방안 제시 등 다양한 역할과 노력을 기울여 2022년 3월 개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길용현 기자

시의회, 2차 추경 6,232억원 의결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6,23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회계 6,148억원, 특별회계 84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지원에 대부분 쓰인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3,066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13억원, 긴급복지지원비 247억원, 생활지원비 177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코로나19 집중센터 인건비 지원 51억원, 집중센터 운영비 지원 14억원, 격리·입원 치료비 10억원, 의료진 수당 12억원 등도 원안 의결됐다. 청년드림은행 운영 32억원, 노동단체사무실 리모델링 50억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300억원 등이 증액됐다.

/황애란 기자

전남 여성들 치열한 '명낙 대리전'

주부 등 1만여명 "이재명, 시대정신 실천 리더십" 민주당원 2,500명 "이낙연, 올바른 인품·도덕성"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대선 순회 경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여성 유권자들이 잇따라 이재명 경기지사과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지역 사회단체 관계자와 교수, 변호사, 지방의원, 가정주부 등 1만여명의 여성 유권자들은 9일 오후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전망대 앞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역 출신 후보와의 연고, 그를 지지하는 이웃들의 정을 차마 무시할 수 없었지만 대전환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이를 담대하게 실천할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이재명 지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정치·사회활동을 통해 그리고 공직자로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지역화폐, 청년·농민 기본소득, 공공배달앱 등 새로운 정책이 빛을 본 것은 그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유권자들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며 가사와 돌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일과 돌봄에 대한 걱정 없는 나라,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책임자는 이 지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들이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낙연 전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여성당원 2,500여명이 참여했다.

여성당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깊어지는 사회적 격차와 갈등, 격화되는 국제 경쟁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검증된 역량과 실력, 올바른 인품과 도덕성, 안정감과 노련미를 모두 갖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공개 지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여성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삶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돌봄의 부담을 사회 전체가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이 전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따뜻한 사랑이었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당신을 닮은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합니다.

호남 유일의 고품격 초대형 전문 장례식장
청지장례식장
 CHEONJI funeral hall
 금호지구 서광주역 옆 100M
대표전화 (062)527-1000
 장례준비 및 절차에 대해 24시간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도, 유망 중기 '스타기업' 으로 키운다

성장 가능성 큰 15개사 선정...3년간 최대 4억 맞춤형 지원

전남도는 기술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15개사를 올해 전남형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선정 기업은 그린에너지 5개사, 바이오헬스케어소재·첨단운송기기부품 4개사,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2개사 등이다.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고루 분포됐다.

분야별로 ▲그린에너지 5개사는 ㈜에스텍, ㈜한국항공공조명, ㈜더블유피, ㈜파워엔지니어링, ㈜티이애프로 ▲바이오헬스케어소재 4개사는 좋은영농조합법인, ㈜자람푸드, ㈜다나메디컬, ㈜월드코스텍 ▲첨단운송기기부품 4개사

는 ㈜용호기계기술, ㈜에스씨, ㈜태진 엔지니어링, ㈜코멘텍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2개사는 ㈜하나에너지, ㈜칸플랜드 등이다.

이번 선정 기업은 기업당 3년 평균 매출액 121억원, 수출액 18억원, 상시 고용인원 35명에 달한다.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전남PM(Project Manager)을 매칭하고, 기업 성장전략 계획 수립, 연구개발(R&D) 기획 등 프로그램을 기업별로 3년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내년에 연 2억원 이내로 R&D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남 스타기업'을 선정

해 도내 46개사를 지원한 결과, 평균 매출액 31%, 수출 22.7%, 고용 7%가 늘어나는 등 도내 기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제로 전기회로 카페, 보호 및 접속 장치 등을 개발하는 기술집약적 기업인 나주 ㈜스위코진광은 지난해 공공개선 지원 컨설팅을 지원받아 불량률을 줄이는 환경을 마련하고, 기술개발과제 2건을 발굴해 수출 타깃형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고미경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스타기업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윤명희 도의원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당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협의와 대안제시 등 역할을 수행한다.

11대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

고 있는 윤 의원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힘써왔다. 또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9일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